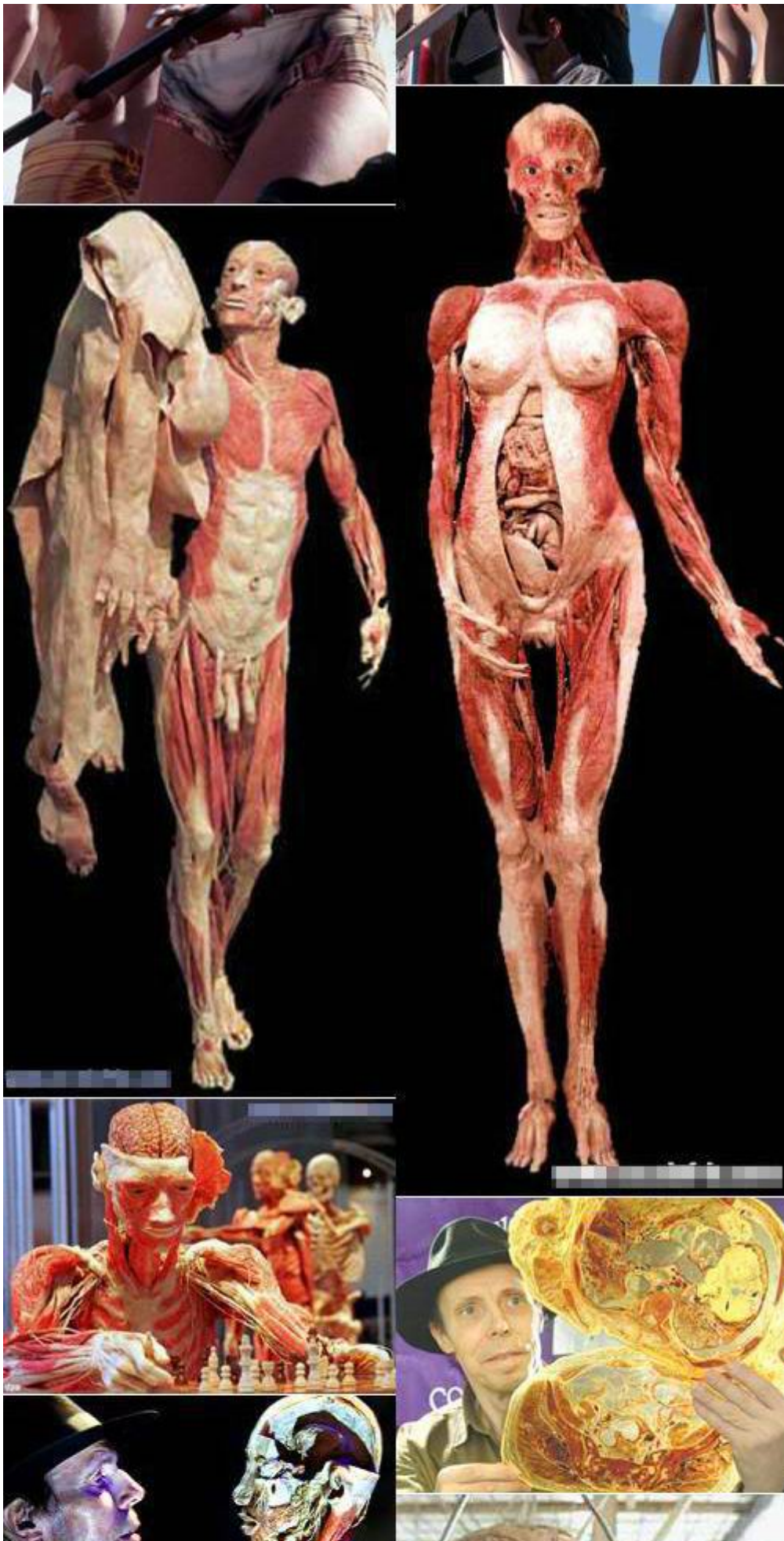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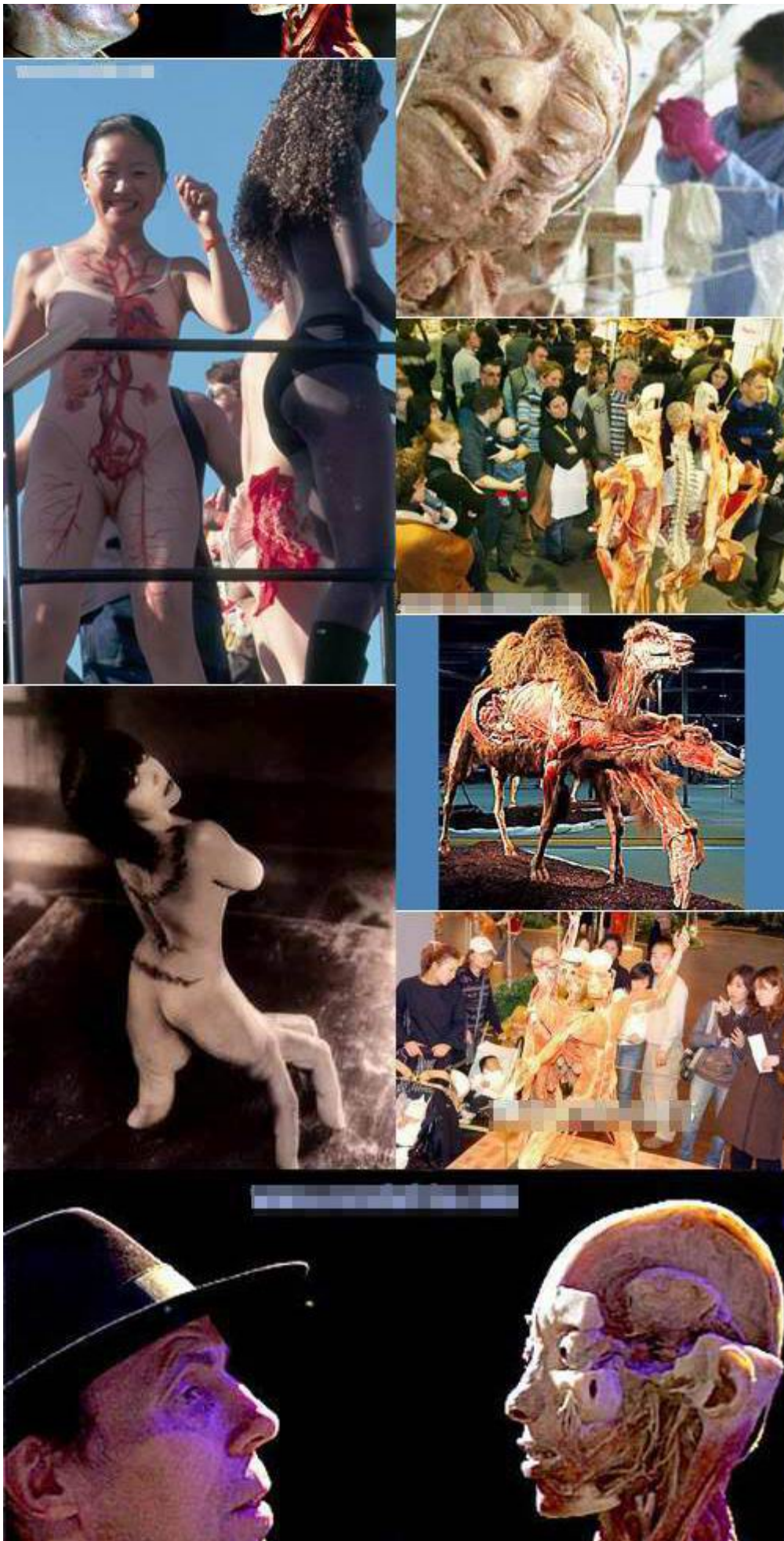
군터 폰 하겐스 (Gunther von Hagens) Issue/Sympathy

2007. 8. 13. 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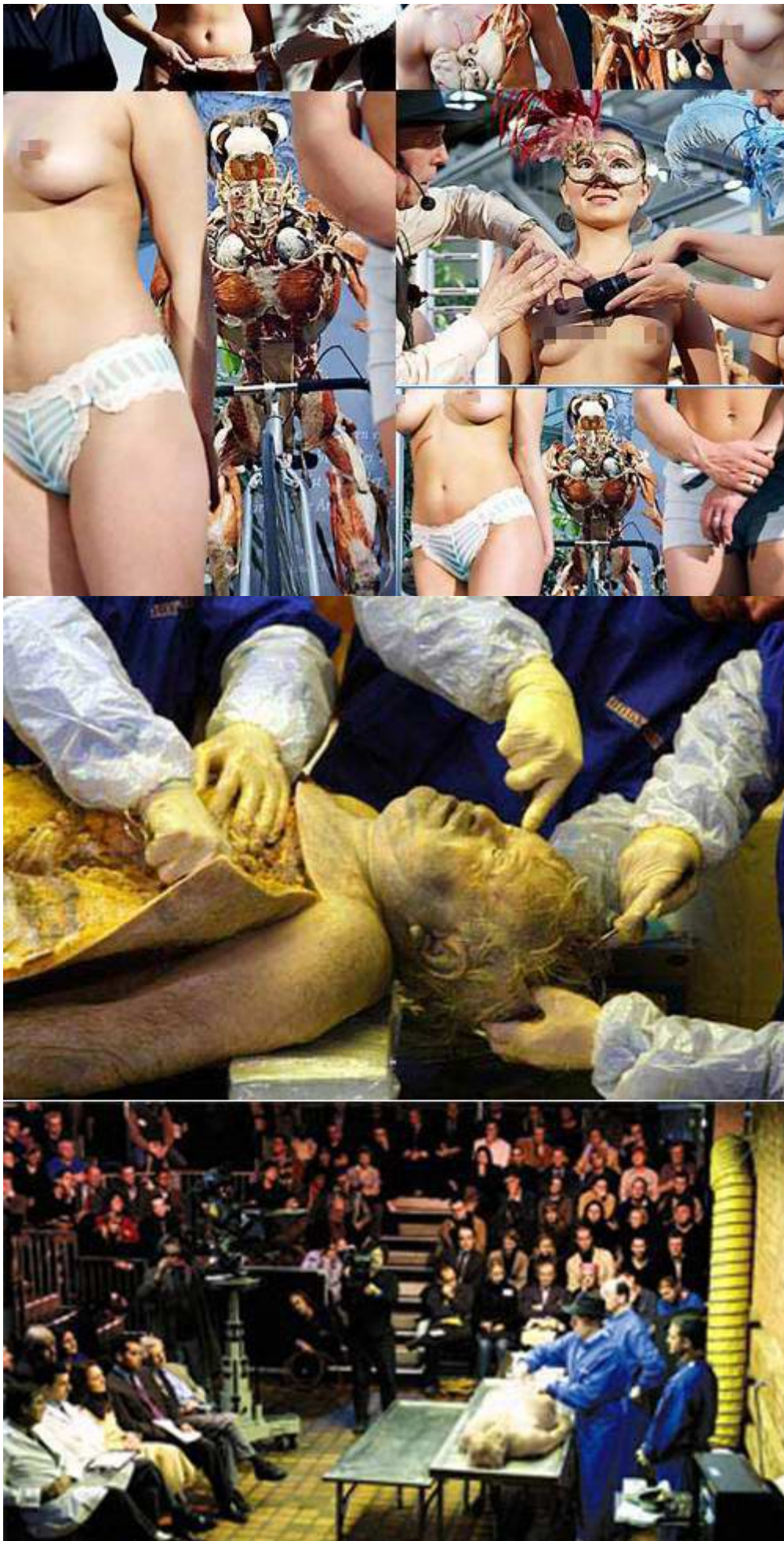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konum1/80041413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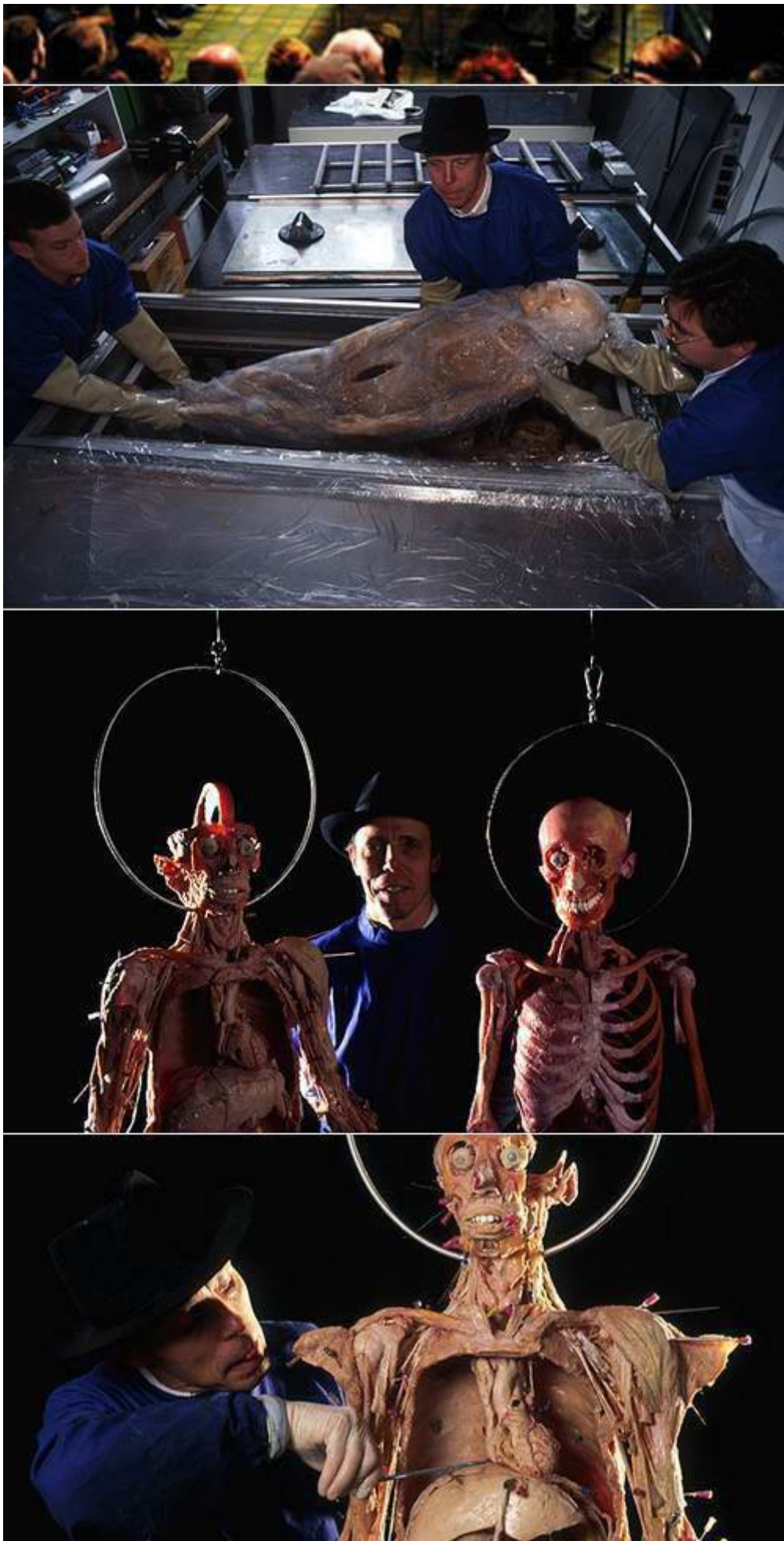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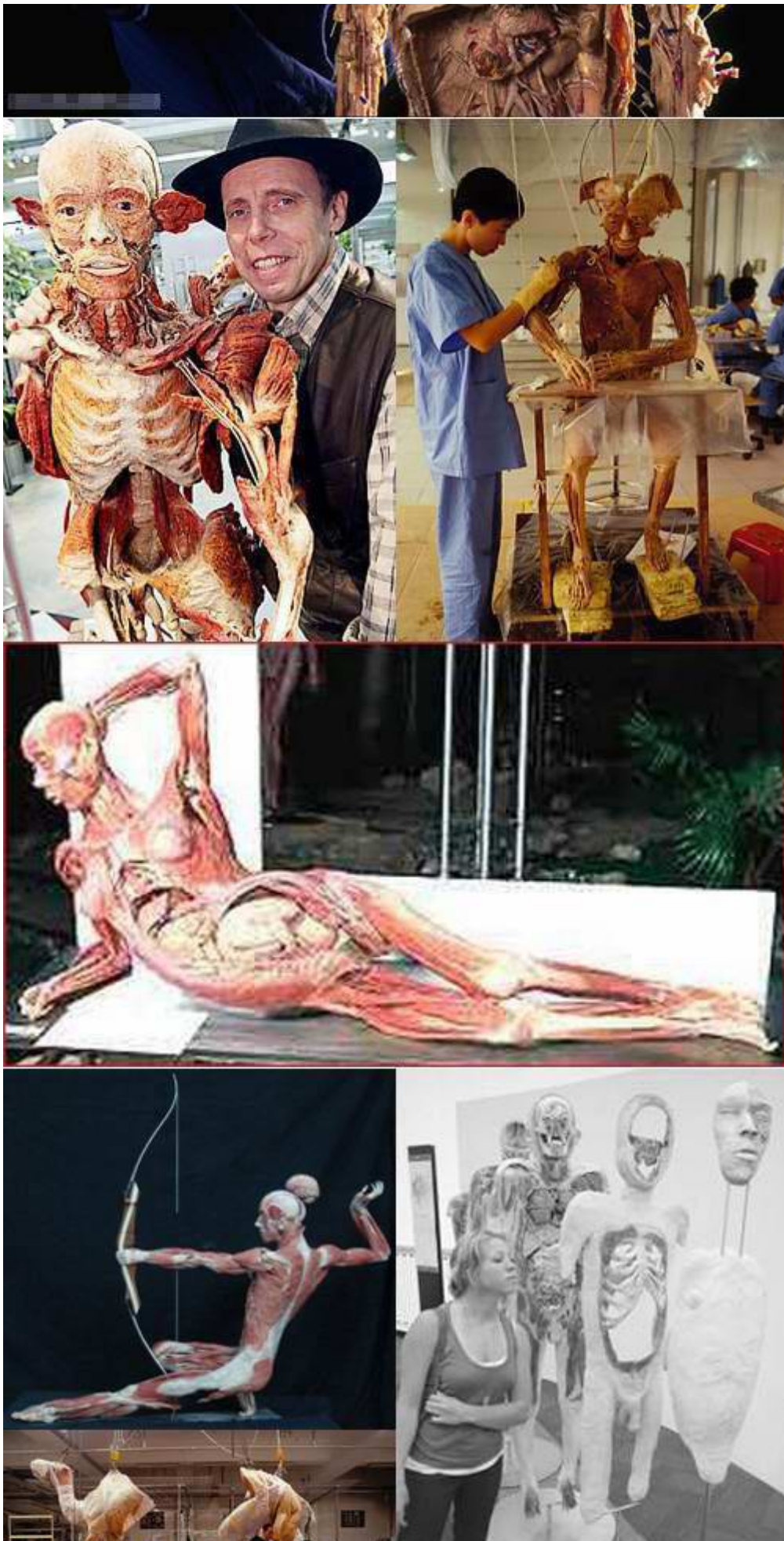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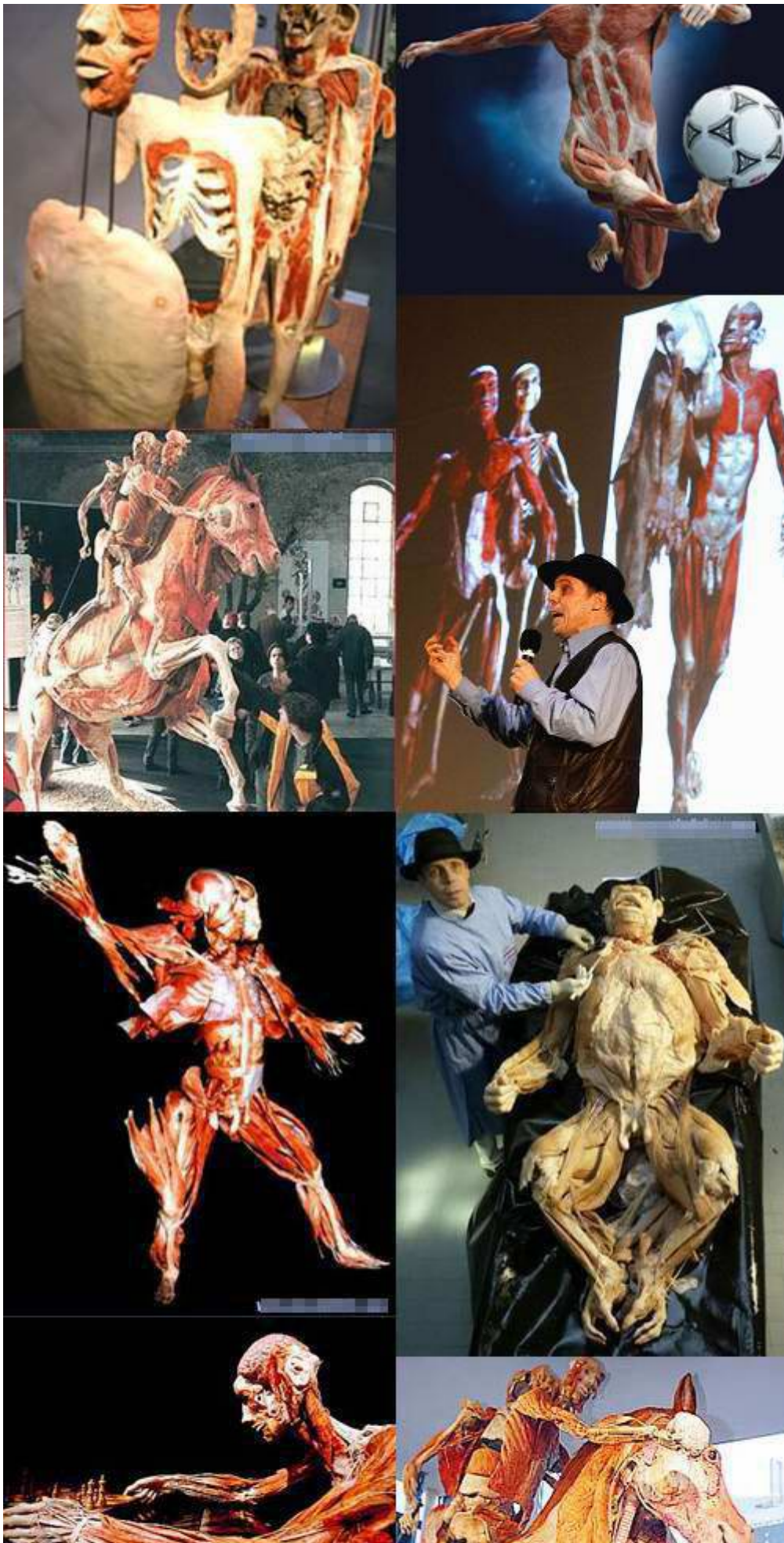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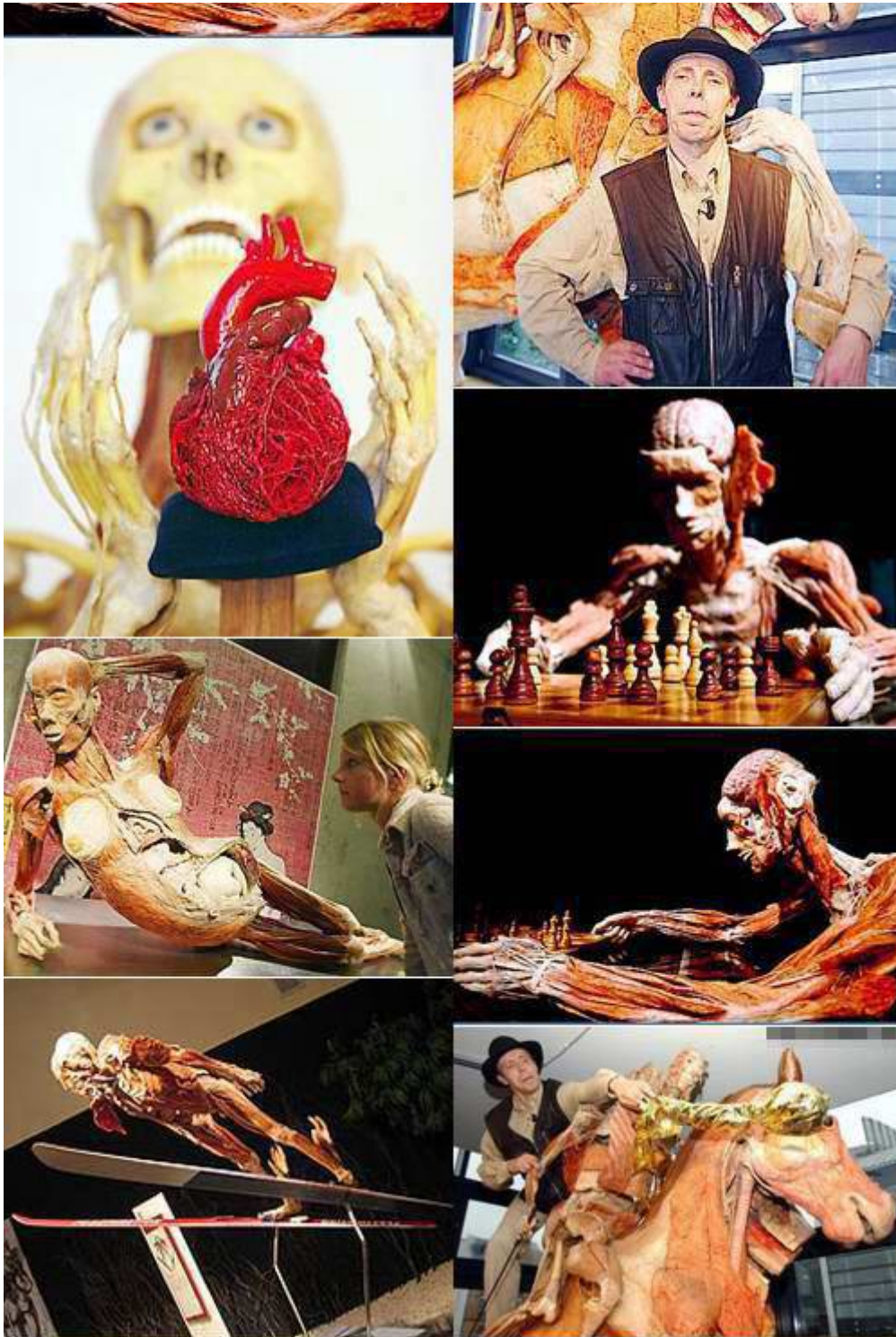












Gunther von Hagens

'인체의 신비' 전시회를 기획한 독일 의사.

귄터 폰 하겐스 박사는 1965년 **예나 대학교** 의대에 입학하였으나, 바르샤바조약군대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한 데 항의하는 전단지를 돌린 혐의로 체포되었다. 풀려난 후 바로 동독을 탈출하여 1970년 서독정부의 도움으로 다른 정치범들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었다.

튀빙 대학에서 그의 연구를 계속하여 1973년 졸업, 의사 자격증을 딴 후,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1975년 마취와 응급 의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해부학과 병리학**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1977년 반응성 플라스틱주입을 통한 '인체표본(plastination)'을 만드는 기초 기술을 개발하였다. '플라스티네이션(Plastination)'은 장기 및 인체 조직에 있는 물과 지방을 모두 제거하고 그 대신 **실리콘** 등과 같은 화학 성분을 채워 넣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포르말린**을 채운 **유리병**에 장기를 담아 보관하는 재래의 방법과는 달리, 건조, 무취한 상태에서 장기 및 인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해 인체를 통째로 보존 처리하는 데는 대략 1,000 내지 1,500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약 40,000마르크라고 한다.

1980년에는 그가 설립한 BIODUR 회사에서 **중합체**(respective polymer)와 관련 설비를 개발하였고, 1993년에는 플라스틱네이션 방법을 사용해 인체 및 장기를 보존 처리하는 자체 연구소(Institut fuer Plastination)를 하겐스 박사는 하이델베르크에 설립, 운영하고 있다.

1996년 이후, 중국 다리안 의대에서 방문교수로 재직 중이며, **명예교수**를 수여한 Bishkek/Kirizstan 의대의 인체해부표본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하겐스 박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그가 만든 200여점의 인체 표본을 전시하는 '인체의 신비'라는 전시회 때문이다. 전시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최초 전시장소는 일본으로 96~98년 열린 전시회 250만명이 다녀갔다.

이후 유럽으로 장소를 옮겨 독일의 **베를린** 만하임 쾰른, **벨기에**의 **브뤼셀**, **오스트리아**의 빈 등에서도 전시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800만 명이 전시를 봤고 이들 전시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2~2003년에 한국에서도 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2002년 11월 **영국**에서 170여년만에 공개적으로 시체를 해부해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영국에서는 1832년 공개적인 시체 해부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중국과 손잡은 죽음의 의사 ['인체의 신비' 전시회 관련 글]

하겐스는 젊은 남녀의 시체를 주로 구입했으며 또 3개월에서 9개월에 이르는 죽은 태아도 가격표에 올라 있었다. 하겐스 역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의 간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첫 아이 이후 임신한 아이는 강제로 낙태시키기 때문에 버려진 태아들이 특별히 많다.



▲ 부산 BEXCO에서 열린 인체의 신비전

요즘 독일 거리를 걷고 있으면 ‘슈피겔(Der Spiegel)’지의 표면에 나와 있는 군터 폰 하겐스(Gunther von Hagens)의 사진이 심심찮게 눈에 뜨인다. ‘죽음의 의사’답게 검은 모자를 쓰고 두 시체 사이에 서있는 하겐스는 실제 사람 시체표본을 전시하여 유명해진 독일인이다. 지식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렸다는 파우스트 박사는 그나마 낭만적인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군터 폰 하겐스는 적나라하게 오직 이름과 금전만 추구하는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사꾼과 거래를 한 자라면 역시 금전에 대한 광적인 욕망을 가진 악마라 볼 수 있다. 그 거래주는 바로 중국이었다.

군터 폰 하겐스는 시체를 특수 처리해서 밀랍처럼 만든 뒤, 플라스틱을 인체 내에 주입하는 과정을 통해 생전의 인체 특징을 완벽하게 유지한 표본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외부 표피와 지방을 벗겨 내어 관람자들이 인체의 내장, 골격, 근육과 신경계통, 대뇌 등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하겐스의 ‘인체의 신비전’은 1997년 열린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유럽(독일,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과 아시아(일본, 한국, 싱가포르) 각국에서 개최, 1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모으는 이른바 과학 히트상품으로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내는 이러한 시체 표본이 어디서 온 것인지 한번쯤 생각한다. 그렇게 많은 시체들이 다 자원 기증한 것일 수는 없다. 실제로 이번 전시회는 윤리 도덕의 문제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슈피겔’지의 기자 Sven Roebel와 Andreas Wassermann은 몇 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예술, 과학, 교육을 표방하는 이번 전시회는 서양 윤리도덕과 위배되는 금전거래와 상업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젠스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그는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도 없는 중공 통치하의 중국에서 시체 거래를 해왔으며 시체 가공 공장 역시 중국에 세웠다. 몇 개 시체 가공공장 중 가장 큰 ‘플라스티네이션사’는 중국 항구 도시 다롄(大連)의 한 공단에 있었다. 3만 평에 7층으로 되어 있는 이 작업장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는 쑤이홍진(隋鴻錦, 의사)를 비롯한 170여 명의 중국 직원이 있었다. 그들은 금속으로 제작된 작업대 위에 시체를 올려놓고 피부와 지방을 제거한 후 혈관에 특수 제작한 플라스틱을 주입한 다음 내장과 각 기관들을 꺼내어 필요한 가공을 한다. 뼈가 제거된 팔, 대퇴 뼈가 준비하게 놓여 있는 작업대는 얼핏 보면 육류 가공 공장 같아 보인다. 그러나 칼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은 도살업자가 아니라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었다. 조사에 의하면 시체 공장 주변에는 시체의 주요한 공급처로 보이는 ‘산둥성 제3감옥’을 포함한 노동수용소 세 곳이 있다고 한다.

중국은 해마다 2천에서 4천 명의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한다. 1984년, 중국인민최고법원, 중국인민최고검찰원,公安部, 民政部, 卫生部와 사법부에서 발표한 ‘사형수 시신 및 시신 장기이용 임시법’에서는 시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거나 자진 기증한 경우에 시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쑤즈강(孫志剛)이나 파룬궁 수련자들처럼 노동수용소에서 공안에 비참하게 맞아 죽은 수감자들의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한 시신들은 자연히 주인 없는 시신으로 처리되어 ‘법에 의해’ 사분오열되고 만다.

2001년 6월, 중국 텐진무장경찰병원 화상과 교수 왕귀치(王國齊)는 미국국회에서 사형장에서 백 차례도 넘게 직접 시신에서 피부와 각막을 분리해낸 사실을 증언했다. 왕교수의 말에 의하면 사형수들은 대부분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사실 많은 중국 사람들은 하늘과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쫓기는 이러한 야만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형제나 친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하젠스는 작년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647구의 완전한 시신과 3909개 신체 조각을 가져왔다. 그가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시체 표본은 중국 다롄에 있는 시체 가공공장에서 왔으며 변태적으로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며 돈이라면 끔찍한 일이라도 서슴치 않는 중국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2001년 11월 12일, 다롄 시체 가공공장의 여대리 손메이위(孫梅玉)는 하젠스에게 31구의 ‘싱싱한’ 시체가 금방 도착했다는 연락을 했으며 12월 29일에는 쑤이홍진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이메일로 일남 일녀의 싱싱한 시체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그 두 구의 시체는 머리를 총탄에 맞았으며 복부는 십자형으로 찢어졌으며 간은 절취당하고 없었다. 2002년 1월, 또 60구의 시체가 기타로 운반되어 왔다.

여론이 두려운 하젠스는 “절대 사형수들의 시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얼버무렸다. 하젠스가 이처럼 풍부한 시체 공급원을 두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하젠스는 한 구의 시체를 사들일 때 부른 가격은 최저 220유로화였다. 소문에 의하면, 중국 충칭(重慶) 제3군외대에서 사들인 시체의 가격이 가장 높아 약 308유로화였으며 환베이(川北)의대에서는 254유로화만 받고 사들였다고 한다. 하젠스는 젊은 남녀의 시체를 주로 구입했으며 또 3개월에서 9개월에 이르는 죽은 태아도 가격표에 올라 있었다. 하젠스 역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의 간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첫 아이 이후 임신한 아이는 강제로 낙태시키기 때문에 버려진 태아들이 특별히 많다. 계획생육위원회 간부와 병원 직원들과 손잡으면 태아는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혈값에 구매하여 만들어 낸 시체 표본들은 하젠스에게 천 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아랍 국가들은 신앙과 문화적 원인으로 의학 연구에 필요한 인체와 장기들은 모두 수입에 의거하고 있다. 하젠스의 시체 표본은 이러한 아랍 시체 시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상품으로 되어 대학들과 의학연구소에서 받은 주문이 넘쳐났다.

사실 하젠스는 중국인들을 잘 몰랐다. 그의 시체 공장에서 일했던 쑤이홍진은 현재 하젠스와 결별하고 하젠스의 공장 근처에 다롄의과대학 플라스티네이션사를 세웠다. 알고 보니 중국 정부에서는 그 독일 사람이 이름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재물도 무제한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을 보고 암암리에 하젠스의 중국 ‘제자’들에게 기술을 배우게 한 다음 2008년 올림픽을 맞아 역시 그에 뒤지지 않는 시체전시회를 열려고 했던 것이다. 만약 하젠스가 침권을 이유로 쑤이홍진을 기소한다면 쑤이측은 하젠스가 ‘불법’으로 시체들을 구매한 사실을 폭로할 것이다.

중국 법률은 인체 기관, 혈액과 조직은 매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젠스는 놀랍게도 중국에서 트럭, 기차, 비행기 등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중국과 해외 시체들을 시체 가공공장에 운반하여 시체 표본을 가공, 제작하고 또 포장하여 수출했다. 평소 사람들이 중국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 노동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수출상품의 합법성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형수들의 시체가 상품으로 되어 공공연히 세계에서 떠돌아다니는 황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랴오펜치(廖天琪, 라오가이 연구재단)

2005년 3월 17일

<http://dailychina.net>

(블로그 blog.naver.com/dailycn)

인체의 신비전 - 베일에 가린 진실



<사진 : 폰 하겐스의 작업장에서 발레리나 자세를 취한 여성의 시체를 손보는 중>

중국의 북동쪽 항구도시의 한 공단. 우리에게 ‘인체의 신비전’으로 알려진 독일의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의 작업장이 있다. 금속 바리케이드가 쳐진 철통보안 속에서 그의 일꾼들 200명과 강철 케이스 안의 645구의 시체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가.

세계 각국을 돌며 엄청난 관객을 몰고다닌 인간 시체 전시(이하 인체의 신비전이라 칭함)를 위해 그는 이미 3년 전부터 이 곳에서 시체 가공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달 독일 언론에서는 최소한 두 구의 시신(중국인)의 두개골에 총탄구멍이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중국의 사형집행 방법은 총살형이다- 그러나 폰 하겐스는 이 같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시신의 견본은 전부 사람들이 자진해서 기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절대로 사형수의 시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도 한 편으로 “나도 모르는 새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얼버무렸다.

1997년 열린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인체의 신비전은 일본, 한국, 영국, 독일에서 개최, 약 1,4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관람객을 유치했으며 현재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싱가포르에서 개최중이다.

비록 폰 하겐스가 한 말은 공개적인 진술은 아니었지만 중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했다.

베이징모닝포스트지는 그의 작업장에서 시체가 밀거래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고, 베이징이브닝 뉴스도 대련의 그의 작업장 수사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대련의 한 택시 기사인 리렌젠은 “나는 왜 그들이 중국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중국은 예로부터 시신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나라다. 그들은 돈이라면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하는가”라며 고개를 저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 슈피겔도 폰 하겐스가 시체(사형당한 중국인들)를 헐값에 사들여 돈벌이에나 이용하는, “수치스러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한편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의 검찰이 폰 하겐스가 중국 사형수의 시신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폰 하겐스와 검찰과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 러시아 죄수의 시신을 사용해 고소당했으나 시신은 독일인 기증자의 것이라고 주장한 전력이 있는 그는 “나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고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델베르트 검찰 대변인은 현재 그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말했으나 조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루터파와 카톨릭의 성직자들은 폰 하겐스가 고인들을 모욕한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단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프랑크푸르트 시 당국은 전시회가 충격적이고 섬뜩하다며 14세 미만의 자녀들이 관람을 못하도록 부모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런던 전시회에서는 한 관람객이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든 태아의 시체를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담요로 전시물을 덮어버리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그러나 폰 하겐스는 이러한 주변의 많은 의혹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유리잔 속의 폭풍’에 비유하며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역경을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다만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한 비난 없이 지금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나는 결백하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매일같이 두 다리 쪽 뻗고 잘 자겠는가” 라는 그의 말을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출처 : Canadian Press